



GSMA-통신 3사, 아시아 최초 휴대폰 도난·분실 방지 위한 '위 케어' 이니셔티브 진행

이동통신사, GSMA의 전 세계 휴대폰 '블랙리스트'에 도난 및 분실 휴대폰 기기 정보 공유

서울, 대한민국 – 국내 통신 3사와 GSMA가 소비자들의 휴대폰 도난과 분실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GSM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휴대폰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 케어' 캠페인은 국내 통신 3사 도난 및 분실 휴대폰 정보를 GSMA의 블랙 리스트와 공유해, 해당 기기가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운영된다.

GSM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과기부, KAIT 및 유관 기관들은 13일 진행된 '위 케어 캠페인 협약식'에 참여했다.

GSMA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 하는 등 한국이 이동통신 강국이어서 '위 케어' 캠페인을 아태지역 중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줄리안 고먼(Julian Gorman) GSMA 아시아 대표는 "한국의 휴대폰 사용자 보호를 위해, 모바일 업계와 정부가 협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GSMA가 추진하는 위 케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모바일 생태계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위 케어 캠페인이 진행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KAIT가 운영하는 중앙장비식별번호 레지스트리(C-EIR)는 GSMA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 GSMA와 KAIT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IMEI 데이터와 도난 및 분실된 기기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해당 기기가 국내외에서 범외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GSMA의 블랙리스트는 전 세계 42개국 125개 이상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며, 약 10억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 보호에 활용된다.

2014년 2월 처음 진행된 '위 케어' 캠페인은 현재 29개의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전 세계 20개국 67곳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위 케어' 캠페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지원

이동통신 기업들은 '위 케어'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 기술의 혁신 혜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통신 업계는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 케어 캠페인'은 디지털 통합, 아동 및 모바일, 환경 보호, 재난 대응, SMS 스팸 제어, 모바일 개인정보, 인프라 배치, 공공 안전 기여와 휴대 전화 절도 등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관계자 코멘트

권영상 SK텔레콤 상무는 "아시아 최초로 분실 단말기의 부정 사용을 막는 GSMA의 '위 케어' 서약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SK텔레콤은 고객의 권리 보호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위 케어'와 같은 공익적인 제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이동사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과기정통부 및 GSMA, KAIT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우선 아시아 국가 및 통신사 최초로 '위 케어' 서약에 참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단말기의 분실, 도난은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에 깊게 공감한다. 당사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와 KAIT 그리고 GSMA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단말기 범죄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GSMA와의 협력을 통해 단말기 절도나 해외 불법 유통 등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말기 범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현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환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부회장은 "전 세계의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GSMA의 '위 케어' 캠페인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KAIT는 2012년 5월부터 국내 분실 및 도난 단말기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IMEI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 케어' 캠페인 참여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분실 및 도난 단말기 범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보다 더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분실 및 도난 단말기의 범죄를 차단하는 '위 케어'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 대해

GSMA는 단말기 및 기기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회사, 장비 공급업체, 인터넷 회사, 그리고 관련 산업 기관 등 광범위한 모바일 생태계 내의 약 400개 이상의 회사와 750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속해 있으며, 전세계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GSMA는 또한 모바일 360 시리즈와 매년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상하이에서 열리는 업계 최고의 MWC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다.

GSM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gsma.com을 방문하거나 공식 트위터 계정 [@GSMA](https://twitter.com/GSMA)를 팔로우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문의 - [홍보대행사 웨버 샌드빅]



김형근 이사 | 010-2885-0434 / hkim3@webershandwick.com

송충현 차장 | 010-2189-5028 / ch.song@webershandwick.com

오지민 사원 | 010-9099-9581 / joh2@webershandwick.com

송세란 사원 | 010-5899-4705 / SSong3@webershandwick.com